

일제강점기의 조선 신여성 인식에 관한 일고찰*

- 여성잡지 『新女性』을 중심으로 -

이행화**

mua-winter@hanmail.net

이정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시작하며 | 4.1 신여성의 소비공간 |
| 2. 『新女性』의 발간 배경과 과정 | 4.2 신체에 대한 근대적 인식 |
| 3. 구여성과 신여성에 관한 담론 | 4.3 새로운 소비주체의 출현 |
| 4. 새로운 소비문화의 형성 | 5. 마치며 |

主題語: 일제강점기(Colonial Korea), 구여성(Old Woman), 신여성(New Woman), 여성잡지(Women's magazines), 근대성(Modernity)

1. 시작하며

1876년 개항부터 1945년 전후에 이르기까지의 식민지 시기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 시기에 근대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체험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조선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체험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던 소비문화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수세기에 걸쳐 나타난 유럽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식민지배 하의 근대성은 전통과 근대,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또는 아이덴티티와 타자의식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할 때, 양자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현될지, 이러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전통과 근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310)

**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의상학과 강사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일제 강점기에 등장했던 잡지 『新女性』이다.

『新女性』은 1923년 9월부터 1934년 6월까지의 통권 38호로 당시 가장 오랜기간 동안 발행된 여성지이다. 특히 여학생에 관한 기사와 여성운동, 농촌 여성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여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1910년대 직접적인 근대의 경험을 통해 신여성들은 서구에 대한 선망과 동경 속에서 서구문물을 받아들였고, 1920년 이후에는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미디어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아 미디어 소비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다. 당시 수용했던 집단은 여학생, 신여성, 모던 걸 등으로 불리는 여성들이었고, 잡지 『新女性』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근대문화 속에서 전통여성을 대변하는 구여성과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신여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잡지 『新女性』에서 나타난 신여성과 구여성에 관한 담론을 고찰하여 신여성을 받아들이는 당시의 시각을 알아보고,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쇠퇴되어가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여성들의 소비형태를 제시하고, 당시 조선의 신여성 인식이 어떠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新女性』의 발간 배경과 과정

본 연구에서는 1920-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 신여성 인식에 관해 고찰하기 위해 패션과 소비문화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의 인쇄매체인 잡지 『新女性』을 대상으로 기사 및 사진, 광고, 만화 등을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920-30년대의 여성잡지는 대부분 창간과 동시에 폐간되거나 몇 호 내지 못하는 잡지들이었다.¹⁾ 20년대 초 여성해방의 목소리를 높였던 여성들의 다수는 일본유학생 출신이었고, 이들이 출간한 『新女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新女子』의 창간은 이화학당 출신의 여성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종간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당시 잡지 발간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해 준다. 적은 독자층과 억압적인 출판 조건 하에서 잡지가 지속적으로 출간되는 데에는

1) 1920년대는 주제와 이념에서 다양한 종류의 잡지들이 출현하여 창간호를 낸 잡지가 200종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발행된 잡지는 많지 않았다.

자금력과 출간 주체들의 열정과 헌신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新女性』은 천도교의 일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핵심주체들이 문화운동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개벽사가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다.

<표 1>은 『新女性』의 발행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新女性』의 발행과정

잡지명	발행기간	통권	발행기관	발행인
婦人	1922.6-1923.8	통권 14호	개벽사	이돈화
新女性	1923.9-1926.10	1호~31호	개벽사	박달성 방정환
別乾坤	1926.11-1931.2	통권 73호	개벽사	차상찬
新女性	1931.1-1934.6	32호~71호	개벽사	방정환 차상찬

『新女性』은 20-30년대 독보적인 여성잡지였다. 1933년 동아일보사의 『新家庭』이 나올때까지는 일본 여성잡지를 제외하고 조선어로 된 여성잡지에서는 거의 경쟁상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책 자체로 보면 8년 동안 간행되었고, 성격으로 보면 『婦人』에서 『別乾坤』에 이르기까지 약 13년간 이어졌다고 할 수 있어 일제시대 가장 오랫동안 많은 호를 간행한 여성잡지이다.

『婦人』은 계몽대상과 독자를 구가정 부인으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실용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표명하면서 문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계몽을 목적으로 친구 절충, 배움을 통한 소양기르기를 강조하였다. 반면 『新女性』은 이들의 핵심층을 여학생과 여고보를 나와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로 설정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자는 취지의 잡지였다. 그러나 『婦人』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취미와 실용에 관한 기사가 고정적으로 게재되었다. 또한 잠시 휴간되었던 시기에 『別乾坤』의 지면을 빌어 여성란을 별도로 할애하여 『新女性』과의 연속성을 꾀하는 과정을 거쳤다.

3. 구여성과 신여성에 관한 담론

당시 구여성과 조선사회를 타파해야 할 구태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신여성을 이러한 암흑세계에 빛을 밝힐 자질과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규정하면서 신여성은 고통받는 구여성의 대립물

로서 출연하였다. 초기 신여성과 구여성에 대한 외양과 교육정도를 비교하여 언급하기도 한다.

「新女性」이라는 「新」字는 엇더한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은 극히 애매합니다. 「新」女性이라는 말은 그 「新」이라는 자체가 「舊」에 대립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舊女性과의 엇더한 특별한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는지 그것은 극히 모호합니다.

時代를 구별하여서 -가령 二十年쯤 잡으면 二十年前에 난 사람은 舊女性이요 그 후에 난 사람은 新女性이라는 말인지 또 의복 행동거지 화장을 표준해야 머리를 쪽진이는 舊女性이요 틀어올린 이는 新女性인지 또 찌른 치마에 구두 신고 문명인이 쓰는 향수를 바르는 것이 新女性이 될 것이요 절하는 대신에 악수하는 것이 新女性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知識을 표준하는 것인지 곳 학교에 가서 근대의 과학적 지식을 (비록 중학 정도라 하드래도) 배운 이는 新女性이 되고 그러지 못한 이는 舊女性이라는 말인지 알는 생각하면 이도 저도 다 아닌 것 가트면서도 실은 그러한 종류를 보통 신여성이라는 것 갖기도 하고 그러치 아니하고 더욱이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²⁾

당시 사용하던 신여성이란 기준이 없어 한마디로 규정해 정의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신여성이란 신교육의 결과물로 사회가 요구하는 유형에 걸맞는 여성을 일컬었다. 이에 반해 구여성이란 무기력한 보수적인 여성, 구태를 벗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신여성과 구여성을 대립시켜 신여성을 높이 평가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조선사회의 대가족 제도 속의 구여성 이 이러한 암흑세계에서 탈출하여 삶의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신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파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女性社會의 다른 한 層을 이루고 있는 舊女性에 對하여 言及해 보자. 오늘날 우리 舊女性들이 얼마나 悲慘한 處地에 있으며 파무친 生活을 하고 있다는 것은 更論할 여지도 없다. 大家族 制度의 桎梏 속에서 우로 嫗祖嫗父의 屬屬 侍下에 눈도 꿈작할 수 없는 威壓을 맞고 男便에게 子息에게 여러 親戚들에게 動物的 虐待와 制裁를 맞고 있는 것이 그들이다. <중략> 그러면 이 舊女性들의 暗黑世界에 참다운 生의 光明을 던져줄 자 누구냐. 그는 말하지 안트래도 覺醒한 各階段의 新女性일 것이다.³⁾

때로는 농촌여성을 구여성으로 비유해 교육받지 못한 농촌 부인의 생활이 고단하고, 구차하다고 표현하면서 배운 것이 없어 남편에게만 의지하여 살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2) 月汀生(1925.5)「新女性이란 何오」『新女性』통권 제16호, p.12

3) 朴露兒(1933.11)「女性恐慌時代-舊女性」『新女性』통권 제65호, p.62

고되지만 바깥일을 할 수 있는 도시여성을 부러워하는 농촌여성의 고뇌를 다룬 기사도 눈에 띈다.

저는 열다섯 열여섯이 되어 중매하는 사람들이 출입할 때 부터 엇전지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엇던 집에 시집을 가게 되나 - 하고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조였든 것이 오날 이집에 시집온 것입니다. 시집가서 부자집 맛떠누리로 아들 딸이나 만히 나흐면 팔자가 조와지겠지 - 하고 날마다 공상을 했답니다. <중략> 학교 선생님이나 그리고 공장으로 나가고 또 농처로 나가 남편과 손목을 잡고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은 몸은 비록 고달프시나 제가 밋는 이 고통보다는 훨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 녀성들이 펴그나 부럽습니다. <중략> 나가튼 구식 녀성을 바리고 자유 결혼을 하여 내 눈 압해서 살게 된다면 그새 나는 엇지할가.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썰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의 성공할 날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몸은 어두운 농촌 한구석에서 시드러 가는 한 마흔 머누리입니다.⁴⁾

반면 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와 소위 신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꼭 필요하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신여성의 고뇌를 대변하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婦人職業問題 이것은 오늘날 社會에 잇서서는 꽤 重大한 社會問題 中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重大한 問題가 解決되어잇지 안음은 엇진 일인지 알 수 업습니다. 現在 學校生活을 썰나서 하는 일 업시 노—는 女性이 그 數가 얼마인지 아지 못하게 만습니다. <중략> 오늘날 갖흔 過渡期에 잇슬사록 더욱이 女子는 한 가지의 職業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程度에 相當한 職業이 업스니 엇지합닛가. 社會는 一般 國民을 爲하여 살기 조케스리 機關이 設置되어 잇다는 今日임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就職하여 밥버리 할 만한 곳이 업스니 矛盾이 아니고 무엇임닛가. 나는 現社會에 對하여 만흔 疑問과 不平을 아니가질 수 업습니다. 우리가티 生活의 安定을 엇지못 하고 썰다니는 女性이 얼마나 만습니다까.

나는 이런 모든 것을 想覺할 썰에는 現社會에 對한 矛盾을 늦기지 안을 수 업고 不平, 疑問, 煩悶을 아니가질수 업습니다.⁵⁾

在來의 朝鮮女人은 大概가 無職이었다. 家庭 안에서 하는 所爲 天職이란 性的 差別로 생긴 家庭的 職責 밋게 업었다. 그러나 新女性의 無職者라면 中等學校를 가지 卒業한 다음에 아즉 就職을 안코잇는 處女的一群이다. 그들의 每日 하는 일은 날로 向上되어가는 奢侈心을 滿足식히는 것과

4) 朴禮洙(1943.3)「農村女性の 苦悶」『新女性』통권 제68호, pp.70-71

5) 金英熙(1925.11)「新女性の 煩悶職業을 求하되-新女性の 職業에 對한 煩悶」『新女性』통권 제21호, pp.26-27

化粧하는 것 節候를 따라 遊興處를 차저 단이는 것 富豪子弟의 好男兒를 探索하는 것 등이며 또한 동무의 結婚式을 차저 돌아단이는 誠意 있는 結婚巡禮者들이다. <중략> 그들은 우리 無產大衆에 有害無益한 아름다운 버려지다.⁶⁾

이처럼 신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로 인해 직업문제에 대한 많은 고뇌가 담겨있다. 또한, 중등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않고 사치와 화장, 유흥을 즐기는 신여성에 대한 질책이 담겨져 있는 기사도 적지 않다. 여성잡지는 여성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과 함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직업을 가지도록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4. 새로운 소비문화의 형성

앞에서 살펴본 신여성과 관련하여 근대도시의 새로운 소비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4.1 신여성의 소비공간

1920년대에 근대소비문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신여성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여성의 출현은 모성과 가족에 대한 관심에서 초점을 여성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과 관련한 여성의 역할에서 현모를 강조하였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양처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으며 태동기에 등장한 신여성과는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성격의 신여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1910년대의 신여성과 비교해 20년대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도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다.

근대 도시는 소비와 유행이 핵심인 모던생활을 낳았다. 1920년대부터 주목되었던 근대도시의 소비문화의 중심에는 신여성이 있었고 이들의 소비형태는 신문과 잡지와 같은 매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세련되고 서구적인 취향으로 변해갔다. 백화점이나 카페, 영화관, 공연장과 같은 근대 도시의 소비 공간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서구식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한 근대 여성들의 주무대가 되었다.⁷⁾

특히 경성에 위치한 남촌의 대표 장소인 본정은 이러한 모던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소비의

6) 朴露兒(1933.11)「女性恐慌時代-無職者-미쓰」『新女性』통권 제65호, p.60

7) 金경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거리였다. 1926년 미쓰코시(三越)백화점, 미나카이(三井)백화점, 히라다(平田)백화점이 잇따라 신축되었고, 남대문로에도 조지아(丁字屋)백화점이 신축되어 본정은 남촌의 대표적인 백화점 거리가 되었다.

<표 2> 경성의 백화점 현황⁸⁾

백화점명	설립연도	신축연도	총면적(평)	종업원수
조지아(丁字屋)	1921	1939	2,000	405
미나카이(三井)	1922	1932	2,500	350
미쓰코시(三越)	1906	1934	2,300	360
히라다(平田)	1926	-	700	200
화신(和信)	1931	1937	2,034	500

1920년대 이후 일본에 영화제작이 활성화되고 극장들이 상설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영화는 대중의 오락이 되었다. 일본인 극장들은 일본의 영화사가 직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영화관은 일본에 지점을 둔 서구 영화 배급회사와 계약을 맺고 서양영화를 수입해 상영했다.⁹⁾

이 시기 카페는 신여성들이 참여하여 창출한 공간으로 당시 소비문화의 식민지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도시의 퇴폐와 환락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소비공간의 하나인 카페는 식민지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인식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였다. 1930년대 이후 서울에서 카페의 번성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좌절과 허무와 현실 안주가 지배적이었던 식민지 지식인의 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식민지적 특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¹⁰⁾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온갖 사람의 마음에 극도의 변화를 주어 순간적 향락에 도취! 그것으로 기분의 위안이라도 구하려는 젊은이들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의 환락장인 카페가 처처에서 새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우선 최근에만 경성에서도 중앙 지대인 중네 뒤골목에 『牧丹』이라든지 관철동에 『王冠』이라든지 인사동에 『樂園』 등은 북촌 조선사람 상대로는 대표적으로 씬을만치 대규모의 설비로써 접객에 응하고 있는 바 불경기! 그와는 정반대로 손님이 풍성하여 일반의 눈을 놀래이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좀 어폐가 있슬른지 모르나 그들의 상업수단의 발달이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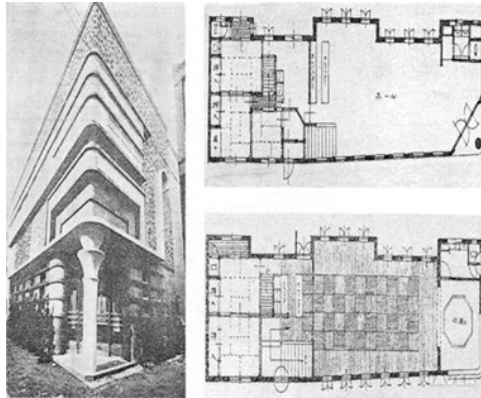
8) 日本百貨店通信社(1938)

9) 주창윤(2008)「1920-19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韓國言論學報』52권 5호, pp.198-199

10) 김경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p.220

또는 무어랄지 하여간 손님을 끄는 그 정략도 요엿해 전과는 아조 판판으로 변해졌스니 그전 가트면 덤허노코 얼굴만 어엽브면 서로 고가의 임금을 붓쳐 女給 쟁탈전을 해오든 것을 이즘에 와서는 얼굴은 둘새 문제이고 그가 영화녀배우나 무대녀배우의 출신으로 다소 인기가 잇든 사람이면 덤허노코 쓸어가는 형편이다.¹¹⁾

유럽에서의 카페가 간단한 식사와 더불어 커피나 차를 제공하는 곳이었던 것과 달리, 1920~1930년대 근대 조선의 카페는 기본적으로 술을 파는 곳이었다. 사실상, 유럽의 카페가 하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다방이 대신하였는데, 이처럼 카페가 서양식 술집으로 변모한 것은 일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카페는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급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림 1> 서양식 카페 ‘낙원회관’

<그림 1>의 낙원회관은 종로에 위치한 서양식 카페로 카페질이 70여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930년대에는 경성에만 카페가 1,000개가 되었는데, 이 소비 공간의 주된 향유자 중 하나가 신여성이었다. 당시 경성만이 도시였던 것은 아니지만, 경성은 근대성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유행에 앞선 공간이고 신여성의 주요활동 무대였다. 『新女性』에 등장하는 도시의 풍경은 경성의 풍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월은 흐른다. 하로 잊힐 한달 두달 이렇게 날이가고 달이감에 따라서 尼奈의 생각도 변하였섯다 성가시게 생각되었든 주위의 남성들의 친절함을 깃버하였스며 따라서 거기에 만흔 흥미를 늦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 단이는 것에 한층 더 호감을 가지게 되었스며 점점 자기의 미모에

11) 개벽사편집부(1931.12)「色箱子-女俳優의 카페進出」『新女性』통권 제41호, p.51

자만심을 가졌고 좀 더 엽부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쓸 뿐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대적 봉자덕생활을 재미있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가 자각덕으로 또는 무자각덕으로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얼마 후에는 혼치 안은 모-던(毛斷)이 될 양장을 짧게 찢기고 가느실크스타킹을 신고 맞본 듯이 밤늦게 카페·출입이나 아모일 업시 가로의 아스팔트에 횡보하게 되었었다.¹²⁾

『新女性』의 백화점 관련 기사는 대부분이 백화점의 여성점원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백화점 여성점원의 애환은 여성의 타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백화점이라는 화려한 소비 공간은 여성의 허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타락시키는 사악한 공간이었다.

이렇듯 경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이러한 소비문화가 뿌리내리고 개화하는 주요한 장이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은 거부나 수용, 관망 등 다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구식의 의상과 장신구, 머리모양, 새로운 화장법 등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당시의 소비문화의 주역은 새로이 출연했던 신여성들이었다.

4.2 신체에 대한 근대적 인식

신체에 대한 근대적 인식은 신체를 둘러싼 의복과 각종 장신구와 함께 근대성과 사회적 계층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 기제로써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신체가 갖는 특성은 근대 소비문화 형성과정에서 더욱 개성이 강화되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소비문화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다리가 길고 발목이 꽃꽃하고 그리고 무릎으로부터 발목까지 굴곡이 업시 비스듬이 - 그야말로 시선(視線)이 무릎에 닿기가 무섭게 발목까지 밋그러져 내려가도록 고화야합니다.<중략> 젊은 녀성을 대하면 다리에서부터 시선이 우호로 올라가게 된 요사히 이 세에 보는 이의 마음은 발서 그의 한 겹 양말 속에 숨여들고 마랐습니다. 시선은 차차 올라가 얼굴에 이르렀습니다 요사히 젊은 녀성은 테격만 급제가 되면 얼굴빛이 좀 검다든지 코가 좀 아튼 것 씬은 문데도 되지 안습니다.¹³⁾ 一九三一年의 尖端 女性은 발서 단 것을 먹는다든지 비지를 먹는 대신에 口腔 속에다 『메스』를 加하면 肥滿한 脂肪이 곳 빠져서 외녕쿨가티 훌쭉하게 變해지고 『헬스액기사이다』로써 蜂腰創造訓練이라는 것을 하면 절구통가티 굵든 허리도 갑자기 참귀나무 싹과 가티 가느러지고 고무로 만든 『엘반도』라는 맞치 兵隊의 脚絆가튼 것을 다리에 두르고 자면 아모리 코끼리가튼 다리통도 황새 다리갓치 간열퍼지는 術法을 알고 있습니다. <중략> 口腔을 씹쫄어도 태연자약하며 消化不

12) 金其鎭(1931.12)「尼奈의세토막記錄」『新女性』통권 제42호, p.101

13) 李瑞球(1931.1)「街頭에서본 모던-女性의 다섯가지 타입」『新女性』통권 제32호 pp.47-49

良症에 걸니여 散步를 適當히 하라는것도 제대로 못하든 게름뱅이가 이층 저녁으로 삼으로 흠뻑 젖는 『헬스엑기사이다』와 맛씨름을 레사로 하며 寢衣에 달린 가느단 끈아풀까지 거북해서 못건대 든 위인이 자리에 들어서도 몸 괴로운 『엘반도』의 武將을 꼴느지 안는 것은 참으로 流行이 아니고는 못할 징역사리일 것입니다.¹⁴⁾

근대에 있어서 신체는 과시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장이기도 하였다.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일상의 패션과 장식을 통해서 다양한 정체성을 찾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소비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신식녀자 중에는 단발이 유행하는데 장래에 최신식녀자가 될 처녀 학생 중에는 단발은 커녕 도로혀 다리꼭지 드리는 것이 크게 유행한다 이러케 각구로 신식이 작구 유행하면 몇 해 후에는 여자가 남자 모양으로 수염을 해서 부치는 일이 또 생길는지 모르겠다

우산(雨傘)을 양산(洋傘)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우산은 꼭 비오는 때나 빗이 쪼이는 때에만 밧고 다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서울의 여자들은 날 조흔 때나 혹은 밤 중에도 우산을 밧고 다니는 우수한 습관이 잇스니 서울에서는 우산을 쯔 야산(夜傘)이라 하야도 올홀 것 갓다¹⁵⁾

넷 날에 구식녀자들이 밧갓 출입을 하자면 의례히 장옷이나 치마를 쓰고 다니더니 지금의 녀학생 들은 문밧을 나갈 때면 자주목도리 하는 것이 한행 세거리가 되였다. 그래서 조선의 녀학생 하면 의례히 자주목도리가 연상되야 녀학생=자주목도리라는 공식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그 목도리는 실상복에 두르는 것이 안이요 윈 몸을 다 두르는 것이니 몸도리라고 하는 것이 좃갓다.¹⁶⁾

근대의 표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신여성의 표상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신여성의 표상은 20년대 활발히 진행되었던 여성지의 발간과 함께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 단발과 우산, 목도리, 구두, 양말, 양장, 화장, 향수와 같은 복식이나 장신구 등도 신여성의 상징이 되면서 근대소비문화가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4.3 새로운 소비주체의 출현

비록 제한된 소수였지만 신여성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면서 소비문화가 확산되었고,

14) 無 名(1931.11)「生命을左右하는 流行의 魔力」『新女性』통권 제41호, pp.66-67

15) 觀相者(1926.3)「女性の雜觀雜評」『新女性』통권 제24호, p.51

16) 개벽사편집부(1926.4)「街頭雜話」『新女性』통권 제25호, p.69

소비의 결과가 빈번히 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생활 전반에 긴축을 필요로 하였고, 사치품 금지령이 제정되면서 도시 소비문화가 위축되는 듯 했던 3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¹⁷⁾

요사히 모던 女性들은 한사람이고 남이 해 입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 넘는 것은 큰 수치로 안다고 그래서 布木店 主人들도 『이 옷감은 요새 새로 나온 것인데 우리 가게에 한 필 맞게 업습니다 어쨌습니까 맘에 안드세요. 아즉 아모도 쓴어 안갓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옷감을 써간단다.¹⁸⁾

20년대 중반 새로운 소비주체로 나타난 것은 모던걸이다. 일본의 모던걸은 192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한 화이트칼라와 하급 서비스직을 포함하는 신중간층 여성, 즉 직업부인을 배경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에는 이러한 신중간층이라는 여성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본에 서처럼 신중간층과 같은 새로운 계층 여성의 등장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다.¹⁹⁾

여기에서 현대의 녀성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현대의 학교를 거쳐서 나온 녀성 말하자면 도회에서 성장하였다고 하야도 가할 만한 여자들을 가라쳐서 말함인 것은 물론이다 그 만큼 도회의 공기에 접촉한 것만큼 그만큼 그들은 도회 문명의 연독(鉛毒)을 넘고 있다. 현대의 녀성들이 화미(華美)한 것을 요구하고, 심한 사람은 그것을 구하기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안을만큼 타락 하여 있다는 사실은 그 주요한 리유가 문명의 연독을 입고 잇는데 있다.²⁰⁾

조선에서도 1920년대 말 엘리베이터걸이나 할로걸, 버스걸, 솥걸, 타이피스트와 같이 일본식 호칭으로 부른 여성서비스직이 생겨났다.

『新女性』의 모던 신어사전에는 당시 편집국이 엮은 몇 가지의 새로운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 모던걸의 범주에 <표 3> 같은 직업군들의 여성을 포함시켰다.²¹⁾

모던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없이 ‘설명불요, 모단(毛斷)걸이라고도 쓴다.’ 정도로 정의해 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소비주체로 나타난 모던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17) 김정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pp.217-220

18) 개벽사편집부(1931.8)『색상자』『新女性』통권 제38호, p.102

19) 김수진(2009)『신여성, 근대의 과잉』소명출판, p.287

20) 金其鎭(1925.6)『요사히新女性의長處와短處-구식녀자와달른덤』『新女性』통권 제17호, p.39

21) 개벽사편집부(1931.1)『모던 新語辭典』『新女性』통권 제32호, p.26

<표 3> 모던걸

모던걸	내용
마네킹 걸	인형대신 의상을 입고 육체와 미소를 점두에 내놓고 유행을 파는 새로운 신직업부인
스택끼 걸	몇 시간동안 산보를 같이해주고 돈을 받는 신신직업부인. 조선미수입
스피킹 걸	이야기동무를 삼아주고 보수를 받는 최신직업부인. 조선미수입
킷스 걸	조선에서 생겼다는데 상세미상. 돈 받고 키스해주는 여자라고 한다. 박람회때 경성에 한참 소문있던 것

<표 4>는 소비문화의 발전기 소비주체였던 직업부인의 생활상을 정리한 기사이다.

<표 4> 직업여성의 실태²²⁾

직업	급료	근무시간	비고
엘리베타걸	70錢/日	오전8 - 오후5	정해진 장소에서 유쾌하고 즐겁게 일하면서 이만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동경에서 유학하는 동창들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생각
할로걸	40圓/月	오전 6시 출근해서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식 오후 7시 퇴근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동생 월사금 20원을 제외한 나머지로 전차표, 점심, 화장품, 의복값으로 소비 연 2회 특별 수당 일이 힘들어 동생이 졸업하면 가정주부가 되는게 바램
부인기자	30-50圓/月	비교적 자유로움	중등 이상 저명인사와의 만남, 문화생활 등 재미있는 일이 많지만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사에 대한 부담감
버스걸	20錢/日	10시간 이상	집안이 어려운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월급의 대부분은 생활비 보통학교 졸업이 대부분 15-18세 채용
숍걸	60錢/日	오전8시30분-	연 2회 급료 인상
타이피스트	30圓/月	오전8시30분-오후5시	그리 바쁘지도 않고 그리 필요한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함 심심하고 한가한 때도 많음 일년에 두 번 일주일가량 휴가도 있음

22) 金蓮花 外(1933.12)「第一線上的 新女性」『新女性』통권 제66호, pp.56-64

이들 직업여성들은 학력이나 집안 사정에 따라 본인의 의지로 직업전선에 뛰어들 경우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정형편 때문에 직업을 가진 여성들로 나누어진다. 부인가자나 타이피스트를 제외하고는 가정형편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였고, 형편이 좋아지면 결혼을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었다. 급료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나, 화장품이나 의복에 지출하는 것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의 모던걸은 팜프파탈의 서양의 외양을 한 여성으로 그려진 예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의 모던걸은 꼭 양장한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의 비평가들이 지목한 모던걸은 유산자층의 자식, 유녀, 여학생 등이었다.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양장으로 변신하고 비교적 많은 구매력과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여성들을 1920년대 조선에서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본 것은 양장한 일본 여성이거나 부분적인 요소를 차용한 조선 여성들, 즉 유녀, 여학생 등이었을 것이다.

다른 상점은 엇더한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상점으로 보면 여학생들이 대개 학용품보다 화장품을 만히 사갑니다. 화장품 중에도 조선의 것은 안이 사가고 값이 만흔 외국 것을 만히 사갑니다. 그리고 우산이나 다른 물품들을 사는데도 실질보다도 외식을 만히 조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품의 견고한 것을 취하지 안코 화려한 것을 취합니다. <중략> 그 중에도 공부하는 여학생에게 사치의 풍이 유행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안이할 수 없습니다. 여학생들은 아즉까지 진고개에 가서 만히 삽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사는데도 공립고등여학교의 학생들은 일본품을 조와하나 리화(梨花)나 배화(培花)의. 학생들은 서양품을 조와합니다. 물론 한 병에도 일원 이상이 되는 것을 서슴치 안코 사갑니다. 또 양말도 값이 비싼 비단 양말을 껏잘들 신습니다. 이것을 진보향상(進步向上)이라 할는지 쏘는 무엇이라고 할는지요.²³⁾

5. 마치며

여성잡지 『新女性』에서 나타난 신여성에 관한 담론을 고찰하고 이들 신여성의 소비공간, 그리고 신체의 근대적 인식, 새로운 소비주체로서의 출현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신여성이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봉건적인 사회 인습을 과감히 타파하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서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해방운동과 사회적 계급타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여성에 대해서 여성잡지 『新女性』에서는 긍정적인

23) 崔南(1926.4)「女學生의各人覺觀」商會로서 본 女學生, 『新女性』통권 제25호, p.41

인 인식과 더불어 부정적인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신여성들은 경제적인 현실상황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인해 활발한 직업 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신여성들의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당시의 여성잡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직업 진출의 중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여성의 등장과 더불어 경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당시의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비 공간이었다. 신여성들은 이러한 소비문화가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신여성들은 서구식 의상과 장신구, 머리모양, 새로운 화장법 등의 보급을 통해서 신체에 대한 근대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김경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김수진(2009)『신여성, 근대의 과잉』소명출판
 주창윤(2008)「1920-19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韓國言論學報』52권 5호
 觀相者(1926.3)「女性의雜觀雜評」『新女性』통권 제24호
 개벽사편집부(1931.12)「色箱子-女俳優의 카페進出」『新女性』통권 제41호
 _____(1931.8)「색상자」『新女性』통권 제38호
 _____(1931.1)「모던 新語辭典」『新女性』통권 제32호
 _____(1926.4)「街頭雜話」『新女性』통권 제25호, p.69
 金其鎭(1925.6)「요사히新女性의長處와短處-구식녀자와달른담」『新女性』통권 제17호
 _____(1931.12)「尼奈의세토막記錄」『新女性』통권 제42호
 金蓮花 外(1933.12)「第一線上의 新女性」『新女性』통권 제66호
 金英熙(1925.11)「新女性의 煩悶職業을 求하되-新女性의 職業에 對한 煩悶」『新女性』통권 제21호
 無 名(1931.11)「生命을左右하는 流行의 魔力」『新女性』통권 제41호
 朴露兒(1933.11)「女性恐慌時代-舊女性」『新女性』통권 제65호
 _____(1933.11)「女性恐慌時代-無職者-미쓰」『新女性』통권 제65호
 朴禮洙(1943.3)「農村女性의 苦悶」『新女性』통권 제68호
 月汀生(1925.5)「新女性이란 何오」『新女性』통권 제16호
 李瑞球(1931.1)「街頭에서본 모던-性的 다섯가지 타입」『新女性』통권 제32호
 崔 南(1926.4)「女學生의各人覺觀-商會로서 본 女學生」『新女性』통권 제25호

논문투고일 : 2015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6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6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1월 19일

〈要旨〉

일제강점기의 조선 신여성 인식에 관한 일고찰

- 여성잡지 『新女性』을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여성잡지 『新女性』에서 나타난 신여성에 관한 담론을 고찰하고 이들 신여성의 소비공간, 그리고 신체의 근대적 인식, 새로운 소비주체로서의 출현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신여성이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봉건적인 사회 인습을 과감히 타파하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서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해방운동과 사회적 계급타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여성에 대해서 여성잡지 『新女性』에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부정적인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신여성들은 경제적인 현실상황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인해 활발한 직업 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신여성들의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당시의 여성잡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직업 진출의 중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여성의 등장과 더불어 경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당시의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비 공간이었다. 신여성들은 이러한 소비문화가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신여성들은 서구식 의상과 장신구, 머리모양, 새로운 화장법 등의 보급을 통해서 신체에 대한 근대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ultural/Historical Perception towards the New Woman (新女性) in Colonial Korea emerged through the “New Woman” Magazine

This paper explores the discourse on the so-called New Woman emerged in a woman's magazine entitled “New Woman” with a view to investigating the associated themes that range from women's consuming space to modern perception towards female body and to the emergence of women as a new major player in consumption and so forth. The New Woman is here defined as an educated, independent – hence capable and qualified – woman who attempts and endeavors to break long-held patriarchal, feudalistic social conventions/customs in society through her active participation in emancipatory movements for improvement of woman's rights and social/class status within it. The “New Woman” magazine is overall found to have implicitly maintained i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editorial stance towards the New Woman. Furthermore, those new women sought to actively involve themselves in pursuing their career activities not only for economic purpose, but also in the wake of their more fundamental, ultimate desire for self-realization and for taking part in social activities. As with such societal needs mentioned above, women's magazines in general played an active part in asserting, and making in public, the issues on the need for the betterment of women's social position and on the importance of women making it to their career paths.

In this sense, in relation to the then emergence of those new women as such, major cities in colonial Korea including Kyungseung (Seoul) were deemed as a crucial space 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then culture of consumption in it, thus pivotal in enabling it to become more firmly established there in the long run. Through this process started the wider spread of Westernized clothing and hairstyle and new make-up techniques across colonial Korea, and it was eventually the new women as a trendsetter that played the very leading role in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then consumer culture.